

고려전기 개경의 영역정비

신안식(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머리말
2. 건국초기의 都內와 郊
3. 五部坊里의 정비와 京城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의 수도 개경은 자연발생적 도시구조 위에 수도의 기능을 보완하여 건설된 도시였다. 개경에는 宮城·皇城·羅城으로 구분되는 성곽시설, 동·서·남·북·중부의 五부와 35坊·344리로 구분되는 도시구획, 本闕과 別宮으로 이루어진 왕실관련 시설, 궁성과 황성을 중심으로 배치된 행정관서, 十字街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및 평지와 얇은 구릉지대의 주거지역, 水路를 중심으로 한 수공업지역, 그리고 기타 근대의 주둔지·교육시설·불교사원 등의 시설들이 있었다.

개경에 대해서는 일제시기의 학자들과¹⁾ 이후 고려시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다.²⁾ 개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에 북한학자 전통철의 논문으로부터³⁾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후 1996년에 박용운은⁴⁾ 개

1) 개경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高裕燮(1945 『松都古蹟』; 1977 『松都의 古蹟』, 悅話堂)·李丙燾(1980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일본의 일부 학자(末松保和, 1938 『高麗開城府考』 『稻葉博士還曆紀念滿鮮史論叢』; 前間恭作, 1963 『開京宮殿簿』 『朝鮮學報』 26) 등의 성과가 있다. 고유섭은 일제시기에 개성 지역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 문헌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고려시대 개경의 유적·유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병도 역시 일제시기 개성을 비롯한 부근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고려시대의 風水圖識을 바탕으로 개경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2) 개경과 관련된 연구사 정리는 박종진, 1999 『고려시기 개경사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34호를 참고하기 바람.

3) 전통철, 1980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력사과학』 2; 전통철, 1980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2)』 『력사과학』 3.

4) 朴龍雲, 1996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경의 시설·구조·행정·기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최근 들어서는 개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경이 갖는 역사적 위상⁵⁾·개경의 공간구조⁶⁾·궁궐⁷⁾ 등의 연구들이 그것이다.

개경은 고려왕조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운영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개경의 수도로서의 자연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었던 것에 비해, 도시운영과 공간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체계적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경의 공간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전기 개경 영역의 정비과정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고려전기의 개경은 外城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그 영역의 안과 밖의 구별이 모호하였다. 이러한 개경의 영역을 지금까지는 성종(981~997)·현종대(1009~1031) 五部坊里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지만,⁸⁾ 건국초기 개경 영역의 정비과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 글은 고려의 건국초기부터 1029년(현종 20) 羅城이 완성될 때까지 개경 영역의 정비과정을 밝혀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개경의 영역은 定都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정해졌을 것이고, 이는 태조대·성종대·현종대의 3차례에 걸쳐서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대를 단위로 해서 개경의 영역이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개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개경의 지리적 구조와 시설물 배치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5) 홍영의, 1998 「고려 수도 개경의 위상」 『역사비평』 45, 역사비평사.

6) 李基成, 1994 「高麗時代 五部坊里의 構造와 運營」,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細野涉, 1998 「高麗時代の開城 - 羅城城門の比定を中心とする復元試案 -」 『朝鮮學報』 166; 장지연, 2000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연구』 15, 서울학연구소; 申安湜, 2000 「高麗時代 開京의 羅城」 『明知史論』 11·12합, 明知史學會; 신안식, 2000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홍영의, 2000 「고려전기 개경의 오부방리(五部坊里) 구획과 영역」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박종진, 2000 「고려시기 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서성호, 2000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鄭殷碩, 2000 「高麗前期 開京의 都市機能과 그 變化」,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7) 金昌賢, 1999 「고려 開京의 궁궐」 『史學研究』 57, 韓國史學會.

8) 邊大燮, 1982 「高麗時代 京畿의 統治制」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李基成, 앞의 논문; 朴龍雲, 1996 「開京의 部坊里制」 『고려시대 開京 연구』; 홍영의, 앞의 논문.

2. 건국초기의 ‘都内’와 ‘郊’

한 나라의 수도는 그 왕조의 등장과 시대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전통시대의 수도 역시 그 왕조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을 담고있으며, 왕조의 운명과 함께 했던 것이 일반적이다. 고구려는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卒本(桓仁) → 國內城(集安) → 平壤으로 수도를 옮겼고, 백제 역시 河南慰禮城 → 熊津(公州) → 泗沘(扶餘)로의 수도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신라는 金城(慶州)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였다. 이들 수도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금성이외에는 몰락하였던 반면 금성은 찬란한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하대의 대대적인 지방사회의 분열로 인해 금성 역시 몰락해 갔고,⁹⁾ 후백제의 完山州(全州), 후고구려의 松嶽·鐵原 등의 새로운 도시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의 성장은 그 시대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¹⁰⁾

918년 궁예 정권을 무너뜨리고 건국한 고려 왕조는 새로운 왕조사의 등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의 역사는 종래 전통적인 신라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대립과 갈등이 비등하였다. 즉 대내적으로는 후삼국 각축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唐나라 이후의 중국 사회와 거란의 등장에서 비롯된 북방세력의 변화 등 동아시아의 변동에도 새롭게 대처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었다. 따라서 고려 왕조는 새로운 국가 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¹¹⁾ 구축해야만 했다. 이

9) 신라의 수도 金城은 고려시대의 三京 중에서 東京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했지만, 南京(漢陽)이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이후 점차 쇠락해 갔다고 할 수 있다.

10) 삼국시대의 松嶽 지역은 정치·경제적 비중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7~8세기에 걸쳐 이 지역에 성곽이(『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松岳郡條;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12년 12월) 조성된 것은 새로운 관심사의 대두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예성강 유역의 新光·延白 평야, 沙川江 유역의 沙川 평야, 임진강 하류의 長湍 평야, 한강 하류의 豊德·金浦 평야 등 넓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경제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동쪽으로는 임진강, 동남쪽으로는 사천강, 서쪽으로는 황해로 나아갈 수 있는 예성강 등의 水路들이 잘 발달된 곳이다. 이들 수로는 물류이동의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예성강 하류의 碧瀾渡는 중국이나 다른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선들이 머물 수 있는 좋은 해상수송로의 거점이었다(홍영의, 1998 「고려 수도 개경의 위상」 『역사비평』 45, 356쪽; 장지연, 앞의 논문, 59~61쪽). 왕건 가계 역시 신라하대 정치·경제적 기반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궁예정권이 송악을 새로운 수도로(『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 12, 孝恭王 2년 7월) 삼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적 기반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개경의 수도로서의 입지는 왕건 가계의 자립기반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황해를 사이에 둔 활발한 교역 및 내륙과 해양으로 이어지던 각종 유통망을 장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곳이었다는(朴漢濟, 2000 「中國歷代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출판부) 것이 보다 부각되었을 것이다.

런 점에서 개경은 태조 왕건의 출신지라는 유리한 점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정치·군사·문화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당시에 유행했던 ‘風水地理說’이었다.¹²⁾ 궁예의 휘하였던 왕건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궁예와의 관계였다. 왕건의 아버지 세조(王隆)가 궁예에게 송악의 勃禦塹城을 쌓게 했던 이유는 朝鮮·肅愼·下韓 지역을 평정할 수 있다는¹³⁾ 근거였다. 이것은 비록 圖讖을 근거로 하였지만, 이후 고려 수도건설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개경에는 이미 태봉국 시절의 시설기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체제를 덧붙여 나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개경의 영역 구축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고려전기의 왕조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개경의 공간영역은 현종 20년에 완성된 羅城을 중심으로 한 城內 지역과 그 밖의 城外 지역(城外)을 포괄한 것이다. 이는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에서 확인해 보면 919년(태조 2)의 定都, 987년(성종 6)·1024년(현종 15)의 五部坊里制 정비, 그리고 현종 20년의 나성 축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었다. 하지만 나성이 완성될 때까지는 행정시설과 각종 도시구성의 시설들을 포함하는 개경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경은 일찍이 694년(신라 효소왕 3년) 松岳郡에 城을 쌓았고,¹⁴⁾ 898년 2월 궁예의 명령으로 勃禦塹城이 축조되어¹⁵⁾ 그 해 7월에 후고구려의 수도가 되면서¹⁶⁾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919년(태조 2) 鐵原에서 松嶽郡으로 수도를 천도하

11) 일반적으로 수도의 입지 조건으로는 ① 통치를 위한 영토의 지리적 중심 ② 교통의 요충 ③ 방어상의 險要地 ④ 국내의 적대세력의 소탕 내지 대항의 기지 ⑤ 정권 수립자의 근거지 ⑥ 경제적 중심지 등을 들 수 있다(史念海, 1986 『我國古代都城建立的地理因素』 『中國古都研究』 2, 1~30쪽). 따라서 개경의 입지 조건은 우선 ⑤의 정권 수립자의 근거지였던 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하기까지는 시간적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였다. 물론 898년(신라 효공왕 2) 7월부터 905년(효공왕 9) 7월까지 후고구려의 수도였던 경험은 이러한 수도로서의 입지를 갖추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2) 崔柄憲, 1978 『高麗時代의 五行의 歷史觀』 『韓國學報』 13, 一志社, 27~35쪽.; 李丙燾, 1980 『風水地理로 본 開京과 西京』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85~101쪽.

13) 『高麗史』 권 1, 태조 무면년.

14) 『三國史記』 권 35 雜志 4 地理 2, 松岳郡條.

15) 『高麗史』 권 1, 태조 무면년.;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弓裔傳.

16)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효공왕 2년 7월.

17)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경명왕 3년.

면서 17) 마침내 고려의 수도가 되었다. 따라서 개경에는 일찍부터 松嶽城·勃禦塹城·후고구려의 여러 시설들이 있었다.

- A- ① 光化 원년(898) 무오 봄 2월에 松岳城을 수리하여 우리 태조로 하여금 精騎大監을 삼고, 楊州·見州를 정벌하였다.〔『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弓裔傳〕
- ② 세조가 (궁예를) 달래어 말하기를, “대왕께서 만약 朝鮮·肅愼·卜韓의 땅에 왕이 되시고자 하면, 먼저 松嶽에 성을 쌓고 나의 장자를 성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궁예가 이를 따라 태조로 하여금 勃禦塹城을 쌓게 하고 성주로 삼았다. 이 때 태조의 나이 20세였다.〔『高麗史』 권 1 세가 1, 태조 무편년〕
- ③ 이 달에 松嶽城을 增修하였다.〔『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2년 8월〕

이들 사료는 개경의 시설 중에서 城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료 A-②에서는 왕건의 아버지 세조(王隆)의 권유로 松嶽에 발어참성이 새롭게 쌓여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료 A-①에서 보면 발어참성이 기존의 송악성을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것이 이후 皇城으로 개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⁸⁾ 그런데 사료 A-③의 송악성은 기존의 궁성과 황성을 통칭한 것인지, A-①·②의 성곽이 이 때까지 松嶽城으로 불렸던 것인지 그 진위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현종대 나성이 완성되기 이전에도 궁성과 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경에 성곽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이를 토대로 한 명칭에서 개경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開京은 京城·京都·都城·京師·皇都·開州·都邑·開城(開城府)·松都·松京·松嶽·王京·王城·王都·北京·中京·上都 등으로도 불려졌다. 이 중에서 都城·京城·開城·王城은 개경의 성곽과 관계된 명칭일 것이다. 開城이란 용어는 고려후기의 자료에서 주로 발견되고, 開城府·開城縣 등과 관계되는 경우가

18) 신안식, 2000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21쪽.

19) 朴龍雲은 고려 수도의 명칭을 ① 보통명사와 유사하게 國都의 의미를 가진 것(京城·京都·都城·京師·皇都) ② 開城郡과 관련이 있는 것(開州·開京·開城(開城府)) ③ 松嶽郡과 관련이 있는 것(松都·松京·松嶽) ④ 王朝의 의미가 많은 것(王京·王城·王都) ⑤ 기타 특별하게 쓰인 것(北京·中京·上都) 등의 유형으로 분류했다(1996 「開京 定都와 시설」 『고려시대 開京 연구』, 44~57쪽).

많았기 때문에 개경의 명칭을 대신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²⁰⁾ 王城은 개경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쓰여진 용어는 아니었고, 『高麗圖經』에서는 주로 羅城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都城과 京城은 개경의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개경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었다. 都城은 인종(1122~1146) 때로부터 고려후기에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고려초기부터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었다. 이에 비해 京城은 성종(981~997) 때부터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開京과 더불어 수도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였다고 할 수 있다.

- A- ④ 王京開城府는 본래 高句麗의 扶蘇岬인데 新羅에서 松嶽郡으로 고쳤다. 太祖 2년에 송악의 남쪽(松嶽之陽)에 도읍을 정하여 開州라 하고, 宮闕을 창건하고, 市廛을 세우고, 坊里를 갈라 五部로 나누었다(辨坊里 分五部).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 ⑤ 松嶽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여 궁궐을 짓고 三省·六尚書를 설치하여 九寺를 두고, 市廛을 세우고, 坊里를 갈라 五部로 나누고(辨坊里 分五部), 六衛를 설치하였다. (『高麗史』 권 1 세가 1, 태조 2년 정월)

이들 사료 A-④와 ⑤에서는 태조 2년에 鐵原에서 개경으로 천도하여 宮闕·官府·市廛·五部坊里와 같은 시설과 영역 등을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辨坊里 分五部’의 기사를 통해서서는 개경의 행정구획이 건국초기부터 정해졌고,²¹⁾ 이를 중심으로 개경의 영역 또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경의 五部坊里制는 王宮을 중심으로 여러 관서·창고 등 국가통치를 위한 핵심시설이 위치하고 있었던 까닭에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다양한 신분층의 開京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였다.²²⁾ 하지만 이 때의 오부방리와 그 외곽의 영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는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0) 朴龍雲, 앞의 논문, 51~52쪽.

21) 개경 五部坊里制의 정비는 태조 2년에 5부의 구획은 이루어졌고, 坊里는 점진적이긴 하였지만 그 나름으로의 구획사업이 행하여져 간 듯하다는 의견이 있고(박용운, 1996 『開京의 部坊里制』 『고려시대 開京 연구』, 94쪽), 오부방리의 구획은 태조 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구획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기도(홍영의, 2000 『고려전기 개경의 오부방리(五部坊里) 구획과 영역』 『역사와 현실』, 38, 43쪽) 한다.

22) 홍영의, 앞의 논문, 39쪽.; 徐聖鎬, 1994 『韓國中世의 都市와 社會』 『東洋都市史 속의 서울』, 191~197쪽.

- A- ⑥ 法王寺와 王輪寺 등 10개의 사찰을 '都內'에 창건하고, 兩京(開京과 西京)의 塔廟와 肖像의 상하고 빠진 것을 아울러 수리하게 하였다.(『高麗史』 권 1 세가 1, 태조 2년 3월)
- ⑦ 大奉恩寺를 '城南'에 창건하여 太祖의 願堂으로 삼았다. 또 佛日寺를 東郊에 창건하여 돌아가신 어머니 劉氏의 願堂으로 삼았다.(『高麗史』 권 2 세가 2, 광종 2년)
- ⑧ 眞觀寺를 '城南'에다 지어 太后的 願刹로 삼았다.(『高麗史』 권 3 세가 3, 목종 2년 7월)

사료 A-⑥에서의 '都內'는 개경 영역의 안쪽이라는 뜻일 것이다. 여기서의 10개 사찰은 法王寺·慈雲寺·王輪寺·內帝釋院·舍那寺·大禪院(普濟寺)·新興寺·文殊寺·圓通寺·地藏寺 등이며,²³⁾ 皇城을 중심으로 그 안과 밖에 세워졌던 것으로²⁴⁾ 알려져 있다. 이 때의 都內라는 용어는 수도의 안쪽이라는 의미로서 그 외곽의 범주와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수도의 외곽이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는 '郊'라고만²⁵⁾ 쓴 경우가 있는 반면, 東郊²⁶⁾·西郊²⁷⁾·南郊²⁸⁾ 등과 같이 방향을 분명히 한 것도 있었다.²⁹⁾ 이러한 郊外 지역은 開城府의 관할에 있었던 赤·畿縣과의 경계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³⁰⁾ 이는 郊라는 용어와 開城府 관할 赤·畿縣의 용어가 합성되어 나타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료 A-⑦에서의 城南에 奉恩寺를 창건한 것과 東郊에 佛日寺를 창건한 것 역시 개경의 영역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봉은사가 城의 남쪽에 있었다면,³¹⁾ 그

23) 『三國遺事』王曆 제 1.

24) 박종진, 앞의 논문, 88쪽.

25) 『高麗史』 권 2 세가 2, 태조 18년 11월 癸卯 '羅王 與王鐵等 入開京 王 備儀仗 出郊迎勞 命東宮與諸宰 從輻而入 館于 柳花宮'.

26) 『高麗史』 권 2 세가 2, 광종 2년 '創大奉恩寺于城南 爲太祖願堂 又創佛日寺于東郊 爲先驢劉氏願堂'; 『高麗史』 권 3 세가 3, 성종 7년 2월 壬子 '左補闕兼知起居注李陽 上封事…… 方今上春 祈穀於上帝 吉日 耕籍于東郊 君雖有事於籍田 后乃躬儀於獻種 願依周禮 光啓國風……';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 開城府上, 東郊條 '崇仁·保定·青郊·藉田等 郊皆是'.

27) 『高麗史』 권 3 세가 3, 성종 15년 3월 '幹等至西郊 築壇傳冊 王備禮受冊 大赦';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 開城府上, 西郊條 '午正門外 黃橋等處是'.

28) 『高麗史』 권 3 세가 3, 성종 16년 10월 '(成宗) 薨 壽三十八 在位十六年 諡曰文懿 廟號成宗 葬于南郊 陵曰康陵'.

29) 郊의 기능과 범위에 대해서는 홍영의, 앞의 논문, 54~62쪽을 참조하기 바람.

30) 홍영의, 앞의 논문, 55쪽. 朴龍雲은 郊 지역을 開城府 관할 赤·畿縣의 일부로 이해하였다(朴龍雲, 1996 『開京의 開城府』 『고려시대 開京 연구』, 64쪽).

31) 奉恩寺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늘날의 개성시 태평동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개경의 황성 밖·나성 안쪽 지역에 해당한다(高裕燮, 1977 『奉恩寺와 國子監』 『松都의 古蹟』, 76~79쪽; 박종진, 앞의 논문, 74·88쪽).

기준이 된 城은 황성일 수 있다.³²⁾ 또한 불일사가 東郊에 있었는데,³³⁾ 그 위치는 현 종 20년에 완성된 나성 밖으로 이해되는 지역이다. 이것은 사료 A-⑥과 더불어 태조 2년에 五部坊里가 정해진 이후 성종 6년에 五部坊里가 다시 정해지기 이전의 것으로, 고려 건국초기의 개경 영역이 ‘都內와 郊’로 구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료 A-⑧에서는 眞觀寺가 城南에 세워졌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城南은 龍岫山 기슭으로³⁴⁾ 나성의 외곽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의 城南 역시 위의 봉은사가 창건된 城南과 같은 것으로도 추정되지만, 나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는 성종 6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경의 都內와 郊의 구별이 이후 나성을 기준으로 할 때의 영역과 거의 일치해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辨坊里 分五部’·都內·城南·東郊·西郊·南郊 등의 용어들로 미루어보아, 고려 건국초기의 개경 영역은 ‘都內와 郊’로 양분되어 운영되었고, 都內의 편제 원리가 五部坊里制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차후의 도성 정비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고, ‘都內와 郊’를 묶어주는 상징적 용어가 京 즉 開京이 아니었을까³⁵⁾ 한다.

3. 五部坊里의 정비와 京城

태조대 이후의 개경은 성종 6년에 五部坊里를 다시 정하면서³⁶⁾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를 계기로 ‘京城’이라는 용어가 성종 6년 이후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또한 995년(성종 15)에 설치된 開城府와³⁷⁾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京城이 앞에서

32) 『中京誌』 권 6, 寺刹條 ‘奉恩寺在皇城南’.

33) 佛日寺는 오늘날 개성시 영남면 불일동에 위치한 것으로 개경의 나성 외곽지역에 해당한다(박종진, 앞의 논문, 74·88쪽).

3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5 開城府下, 古跡條 ‘眞觀寺 古基在龍首(말자주: 岫)山麓’.

35) 『高麗史』 권 2 세가 2, 태조 18년 11월 癸卯 ‘羅王 與王鐵等 入開京 王 備儀仗 出郊迎勞 命東宮與諸宰 從衛而入 館于柳花宮’. 여기에서 ‘신라 왕이 開京에 들어오자 태조가 郊外에서 맞이했다’라는 것은 개경의 영역이 都內와 郊를 포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6)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成宗六年 更定五部坊里’.

37) 『高麗史節要』 권 2, 성종 14년 7월 ‘改開州爲開城府 管赤縣六 畿縣七’.

살펴본 개경의 都內와 郊外를 통칭한 것인지 아니면 都內를 주로 지칭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개경의 영역을 엿볼 수 있는 용어이다.

- B-① 光宗 24년 2월 壬寅에 連理木이 京城 德瑞里에서 났다.〔高麗史〕 권 54 五行 2, 木條
 ② 京城 宋興坊의 崔氏의 딸이 일찍 寡婦가 되어 再嫁하지 않고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아이들을 잘 길렀다.〔高麗史〕 권 3 세가 3, 성종 9년 9월 丙子
 ③ 雍熙 3년(986, 宋 太祖)에 노인에게 지급한 規制에 준하여 京城에 있는(在京城) 庶民으로 나이 80세 이상 된 자는 말은 관청에서 姓名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高麗史〕 권 3 세가 3, 성종 10년 7월 己酉)

사료 B-①에서의 京城 德瑞里는 사료 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京城 사례이며, 德瑞里的 용어로 보아 京城이 都內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사료 B-②와 ③은 성종 6년 개경의 五部坊里를 다시 정한 이후의 京城 사례이다. 京城의 宋興坊은³⁸⁾ 都內的 坊名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③의 ‘在京城’이라는 표현은 都內 혹은 都內와 郊外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료에서 나타나는 京城이라는 용어의 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때의 개경 성곽으로는 宮城과 皇城이 있었지만, 경성이 이것들만을 통칭하는 용어는 분명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 B-④ 契丹主가 京城에 들어와(入京城) 大廟·宮闕·民屋을 모두 불태웠다. 이 날 왕은 廣州에 이르렀다.〔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2년 정월 乙亥)
 ⑤ 刑部에서 아뢰기를, “郎中 白行隣은 (왕께서) 남쪽으로 행차하실 때 京城에 머물러 있으면서(在京城) 스스로 御史中丞이라 하고, 李因禮·巨貞 등과 더불어 노비들을 불러 모아 군대로 삼았는데, 적을 보고는 싸우지 않고 무너졌으니 청컨대 除名하소서”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2년 7월 甲申)

38) 宋興坊은 현종 15년 五部坊里를 정했을(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때 확인할 수 있는 坊名이 아니다. 이를 南部의 安興坊으로 본 경우도(朴龍雲, 1996 『開京의 部坊里制』 『고려시대 開京 연구』, 95~96쪽) 있다.

사료 B-④에서의 ‘入京城’과 B-⑤에서의 ‘在京城’은 都內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B-④에서의 大廟는 그 위치 비정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예컨대 “천자는 7廟를 세우고 제후는 5廟를 세우며, 왼쪽에 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 社稷을(左廟右社)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前朝(고려)에서는 昭穆의 순서와 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城 밖에 있으며(在城外), 사직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다.”라고 한 조선 『太祖實錄』의 사례가 있다.³⁹⁾ 이에 의하면 개경의 태묘가 城外 즉 羅城 밖에 있었다고 했는데, 현종 20년에 완성된 羅城을 기준으로 할 때의 태묘는 분명히 나성 밖에 있었다.⁴⁰⁾ 그러나 태묘가 처음부터 都內를 벗어나서 존재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기록에서 城 밖에 있던 태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의 태묘는 989년(성종 8) 4월에 짓기 시작하여 동왕 11년 11월에 처음 완성되었고, 1011년(현종 2) 거란의 침입으로 태묘가 불타자 동왕 5년 4월에 齋坊을 修築하고 임시로 神主를 봉안하다가 동왕 18년 2월에 태묘를 修築하고 다시 神主를 봉안하였던 사례가⁴²⁾ 있다. 그리고 현종 5년과 18년에 태묘를 ‘修築’하였다는 것은 태묘가 기존의 위치에 그대로 있었음을 암시한다. 태묘가 처음 만들어지는 성종 8년은 동왕 6년에 五部坊里를 다시 정한 이후이고, 현종 18년의 태묘 수축은 동왕 15년에 京城의 五部坊里를 또 다시 정하고 羅城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 태묘 역시 처음에는 都內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都內 지역이 나성의 완성에서 비롯된 城內 지역보다 넓었을 것으로도 추정 할 수 있게 한다. 즉 기존의 都內의 영역이 羅城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영역의 가감이 있을 수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9) 『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28일 정미 ‘卽位敎書’.

40) 『高麗史』 권 43 세가 43, 공민왕 20년 10월 乙未 ‘親享大廟 受群臣賀 還次崇仁門內 成均學官 率生員 · 十二徒生徒 獻歌謠曰’ : 『高麗圖經』 권 17 祠宇 ‘其祖廟 在國東門之外’ : 장지연은 고려시대에 가까운 기록을 통해서 태묘가 나성 밖에 위치했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조선시대의 『新增東國輿地勝覽』 · 『中京誌』 등을 통해서 태묘의 위치가 고려시대 중간에 나성 안쪽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75쪽).

41) 『高麗史』 권 61 지 15 禮 3, 諸陵條 ‘成宗八年四月 始營太廟 十一年十一月 太廟成’.

42) 『高麗史』 권 61 지 15 禮 3, 諸陵條 ‘顯宗二年 太廟災 每值時祭 各祭於本陵 五年四月 始修齋坊 權安神主 十八年二月 修太廟 復安神主’.

B - ⑥ 蕭遜寧이 新恩縣에 이르니 京城과의 거리가 100里였다. 왕이 城外의 民戶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을 비워서 기다리게 명령하였다. 遜寧이 耶律好德을 보내어 書狀을 가지고 通德門에 이르러 回軍한다고 알리고 몰래 斥候兵 300여騎를 보내어 金郊驛에 이르거늘, 우리측에서는 군사 100명을 보내어 밤을 타서 습격하였다.〔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10년 정월 辛酉)

⑦ (顯宗) 15년에 또 다시 京城의 五部坊里를 정하였다.〔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사료 B-⑥의 현종 10년에는 아직 나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城外의 民戶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했을 때의 城이 어떤 것이었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京城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의 城外는 경성의 외곽지역이었을 것이다. 사료 B-⑦에서의 京城은 都內를 의미하고, 이는 “王可道가 羅城을 쌓는데 사람들을 시켜 日傘을 들고 環立하게 하고 높은 데 올라 進退하여 그 闊狹을 고르게 하여 城基를 정하였다”라⁴³⁾ 데서의 나성 내의 구획과 일치할 것이다.

B - ⑧ 愍宗을 城東에 이장하여 義陵이라 하고, 諡號를 宣讓으로 고치고 廟號는 穆宗이라 하였다.〔高麗史節要〕 권 3, 현종 3년 윤10월)

⑨ (顯宗) 3년 閏10월 壬申에 노루가 毬庭에 들어왔다. 6년 3월에 또 호랑이가 歸仁門에 들어왔다. 7년 7월 壬戌에 호랑이가 城에 들어왔다. 11년 9월 壬申에 호랑이가 城에 들어와 사람을 물었다. 20년 4월 乙未에 호랑이가 京城에 들어왔다.〔高麗史〕 권 54 五行 2)

사료 B-⑧에서 穆宗의 무덤이 城東에⁴⁴⁾ 위치했다면, 현종 3년에는 아직 나성이 축조되지 않았지만 그 기준이 된 城은 京城이었을 것이다. 사료 B-⑨에서 보면, 현종 3년의 毬庭은 宮城, 현종 6년의 歸仁門은 皇城, 현종 20년의 京城은 羅城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종 7년·11년의 城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

43) 『高麗史』 권 94 열전 7, 王可道傳.

44) 목종의 무덤이 정확히 어딘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城東은 주로 羅城 밖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만 그 역시 京城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참고하면, 개경의 영역은 건국초기에 都內와 城外 지역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성종·현종 때 五部坊里의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京城과 城外(郊外) 지역으로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경의 영역은 나성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나성이 기준이었겠지만, 그 이전의 경우 즉 都內와 城外 혹은 京城과 城外 지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었을까가 의문으로 남는다.

『高麗史』와 『高麗圖經』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황성의 20개 성문, 나성의 25개 성문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城郭이 군사적 용도로 중요하다면, 황성과 나성의 성문은 많은 편에 속한다. 나성의 성문은 황성의 성문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성의 축조는 현종 즉위년에 논의가 있던 이후 현종 원년(1010)·9년(1018)의 거란 침략과 5년(1014)의 김훈·최질의 반란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공사가 늦춰지다가, 현종 10년 2월 거란의 침략을 격퇴하고,⁴⁶⁾ 그리고 동왕 11년 8월에 대대적인 궁궐의 重修를⁴⁸⁾ 계기로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성의 축조가 외적의 침략을 경험한 이후였다면 군사적인 용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을 것인데, 성문이 많았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도 외에 도시의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에 따라 나성의 성문은 개경의 여러 도로와 군사적인 면을 고려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표 1>과 이 글의 뒤쪽에 부록된 <그림 1>을 참조하면, 나성의 성문은 개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요 도로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⁴⁸⁾ 개경의 주요 도로는 나성의 정북문인 北城門(安和門으로 추정)에서 남쪽으로 廣化門 앞을 지나 나성의 정남문인 會賓門(妣殿門)에 이르는 남북방향의 대로, 나성의 정서문인 宣義門(午正門)으로부터 十字街(현 南大門 거리)를 지나 나성의 정동문인 崇仁門에 이르는 동서방향의 대로가 있었다. 그리고 위의 동서방향의 대로와 평

45)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高麗圖經』 권 3 城邑, 國城條.

황성과 나성의 성문과 그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細野涉, 1998 「高麗時代の開城-羅城城門の比定を中心とする復元試案-」, 『朝鮮學報』 166. ; 신안식, 2000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 申安湜, 2000 「高麗時代 開京의 羅城」, 『明知史論』 11 · 12합.

46) 『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10년 2월.

47) 『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11년 8월 庚子.

〈丑 1〉 羅城의 城門

地理志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紫安門	安和門	成道門	靈昌門	安定門	崇仁門	弘仁門	宣旗門	德山門	長霸門	德豐門	永同門	會賓門	仙溪門	泰安門	鶯溪門	仙巖門	光德門	乾福門	昌信門	保泰門	宣義門	狻猊門	永平門	通德門				
					3	2		12		4			6		7			8				9	10			1	5	11	
					安定門	崇仁門		宣祺門		長霸門			會賓門		泰安門			光德門				宣義門	狻猊門			宣仁門	宣華門	北昌門	
高麗圖經					須恤	東門		金郊							貞觀			正州								東大門		崧山	
					正東	正東		東北		東南			正南		正南			西南				正西	正西			正東	正南	正北	

* 이 표는 『高麗史』 권 56 地理志와 『高麗圖經』 권 3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 표기 순서는 『高麗史』에 맞춤.

행하여 訥里門(永平門으로 추정)으로부터 광화문을 지나 조선 태조 2년(1402)에 완성된 內城의 內東大門을 지나는 동서방향의 도로 및 이 도로와 평행하게 都察峴으로부터 궁성의 후면(황성의 後苑으로 추정)을 지나 나성의 炭峴門(靈昌門으로 추정)에 이르는 또 하나의 동서방향의 도로가 있었다.⁴⁹⁾ 이 밖에도 지형에 따라 이들 기본 도로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도로가 있었다고 한다. 『高麗史』 地理志 王京開城府條에서⁵⁰⁾ 나성의 大門 4개 · 中門 8개 · 小門 13개 역시 이들 도로에 위치했을 것이다. 『高麗圖經』에서 살펴볼 수 있는 큰 도로의 ‘官道’ · ‘長衢’ · ‘南大街’와 작은 도로의 ‘小徑’ 등이⁵¹⁾ 그런 것일 것이다. 『高麗圖經』에서 밝힌 12개의 성문은⁵²⁾ 『高麗史』의

48) 전룡철, 1980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역사과학』 2, 22쪽.; 徐聖鎬, 1994 「韓國中世의 都市와 社會」, 『東洋 都市史 속의 서울』, 188~191쪽.; 林龍雲, 1996 「開京 定都와 市肆」, 『고려시대 開京 연구』, 36~37쪽.

49) 이것을 참고하여 이 글의 뒤쪽에 부록된 〈그림 1〉에서 추정된 도로를 표시하였다.

50)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51) 『高麗圖經』 권 17 祠宇, 靖國安和寺條 ‘安和寺 由王府之東北 山行三四里 漸見林樹清茂 藪麓崎嶇 自官道南玉輪寺 過數十步 曲徑縈紆’.; 『高麗圖經』 권 5 宮殿 1, 王府條 ‘王府內城 環十三門 各揭名額 隨方見義 惟廣化門 正東通長衢’.; 『高麗圖經』 권 6 宮殿, 長慶宮條 ‘長慶宮 在王府之西南 由崑山麓 有二小徑 北通王府 東通宣義門 長衢老屋數十楹’.; 『高麗圖經』 권 16 臺省 ‘大市 · 京市二司 在南大街’.

52) 『高麗圖經』 권 3 城邑, 國城條.

大門과 中門일 것이며, 『高麗圖經』의 ‘小徑’은 『高麗史』의 小門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성의 성문은 이러한 官道 혹은 長衢 즉 중심 도로와 都內로 들어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 혹은 작은 길(小徑) 등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나성의 성문은 그것이 축조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개경 출입의 중요 지역에는 통제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들이 일찍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예컨대 후삼국 전쟁이 활발한 때에 아무 거침없이 누구든 수도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 - ⑩ 12개의 外門에는 각각 이름을 표시하였는데, 옛 기록에는 겨우 그 중 7곳을 알 수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알 수 있다. 正東에는 宣仁(옛날에는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다만 東大門이라고 했다. ‘舊不見名 止曰東大門’)·崇仁(옛날에는 東門이라고 했다. ‘舊曰東門’)·安定(옛날에는 須恤이라고 했는데, 이는 고려 사람들의 方言이다. ‘舊曰須恤 乃麗人方言也’)이 있고, 東南에는 長霸가 있고, 正南에는 宣華(옛날에는 문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舊不見門’)·會賓·泰安(옛 이름은 貞觀인데, 지금은 이 이름으로 바꿨다. ‘舊名貞觀 今易此名’)이 있고, 西南에는 光德(옛날에는 正州라고 했는데, 또한 그쪽 길과 통한다. 州郡을 문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舊曰正州 亦通其路耳 州郡非門名所宜’)이 있고, 正西에는 宣義·獫狁가 있고, 正北에는 北昌(옛 이름은 崧山이라 했다. 다만 등산하는 길이지, 본래의 이름이 아니다. ‘舊名崧山 特登山之路 非本名也’)이 있고, 東北에는 宣祺(옛 이름은 金郊였는데, 지금은 이것으로 바꿨다. ‘舊名金郊 今易此’)가 있다.(『高麗圖經』 권 3 城邑, 國城條)

이 자료를 통해서 ‘宣仁門 → 東大門, 崇仁門 → 東門, 安定門 → 須恤, 泰安門 → 貞觀, 光德門 → 正州, 北昌門 → 崧山, 宣祺門 → 金郊’ 등 나성 성문의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舊·舊曰·舊名’의 옛날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시기를 대상으로 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는 또한 『高麗圖經』에서의 “王城(羅城)의 여러 문들은 대개 草創期에 만든 것이다”라고⁵³⁾ 했을 때의 ‘草創’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나

성의 성문이 현종 20년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황성의 성문은 그 보다 앞선 시기에 정해졌을 것이다. 『高麗史』地理志, 王京開城府條에서 보면,⁵⁴⁾ 나성과 황성의 성문 중에서 宣義門·通德門과 같이 서로 겹치는 것이 있다. 또한 사료 B-⑩에서의 宣仁門이 황성의 선인문과 겹친다. 이것은 성문 명칭이 정해지는 기준 시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도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나성이 축조되면서 황성의 존재가 약화되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高麗圖經』의 ‘舊名’과 본래의 명칭이 달랐던 것은 성문이 정해지는 시기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나성의 성문은 성곽의 축조를 담당한 王可道 등에 의해 성곽의 윤곽을 구상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高麗圖經』의 ‘舊名’이라는 용어들이 임시로 붙여졌다가 현종 20년 나성의 완성을 전후해서 본래의 명칭으로 정리되었을 수도 있다. 둘째, 나성의 성문은 건국초기부터 郊外 지역에서 都內로 들어갈 수 있는 주요 도로의 출입문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역시 ‘舊名’의 명칭으로 불러졌을 수도 있다.

우선 첫째의 경우를 살펴보면, 『高麗史』地理志의 황성 성문은 나성 성문보다 앞선 시기에 정해진 것이다. 예컨대 1009년(목종 12)에 宣仁門⁵⁵⁾·1015년(현종 6)에 歸仁門⁵⁶⁾·1019년(현종 10)에 通德門⁵⁷⁾ 등의 정식 명칭이 나성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발견된다. 이것들은 황성의 성문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高麗圖經』의 ‘舊名’과 같은 것이 과연 나성의 성문 명칭으로 붙여질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임시로 정해진 명칭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53) 『高麗圖經』 권 4 門關, 外城條 ‘王城諸門 大率草創’.

54)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顯宗)二十年 京都羅城 成 [王初即位 徵丁夫三十萬四千四百人 築之 至是功畢 城周二萬九千七百步 羅閣一萬三千間 大門四 中門八 小門十三 日紫安 日安和 日成道 日靈昌 日安定 日崇仁 日弘仁 日宣旗 日德山 日長霸 日德豐 日永同 日會賓 日仙溪 日泰安 日鶯溪 日仙巖 日光德 日乾福 日昌信 日保泰 日宣義 日狻猊 日永平 日通德 又皇城二千六百間 門二十 日廣化 日通陽 日朱雀 日南薰 日安祥 日歸仁 日迎秋 日宣義 日長平 日通德 日乾化 日金耀 日泰和 日上海 日和平 日朝宗 日宣仁 日青陽 日玄武 日北小門 一云 丁夫二十三萬八千九百三十八人 工匠八千四百五十人 城周一萬六百六十步 高二十七尺 厚十二尺 廊屋 四千九百一十間].

55) 『高麗史』 권 3 세가 3, 목종 12년 2월 己丑.

56) 『高麗史』 권 54 지 8 五行 2, 현종 3년 윤10월 壬申.

57) 『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10년 정월 辛酉.

생각된다. 둘째의 경우는 현재로선 억측일 수도 있지만, 건국초기 개경 영역의 운영적 면에서는 고려해 볼만하다.

B - ⑩ 햇빛이 붉은 장막을 친 듯 하였다. 康兆의 군사들이 宮門에 난입하매 왕이 피하지 못할 것을 알고 태후와 더불어 울면서 法王寺로 나아갔다. (생략) 왕이 宣仁門으로부터 나올 때 侍臣들이 처음에는 모두 걸어서 따르다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말을 타고 따르는 자가 있었다. 歸法寺에 이르러 御衣를 벗고 음식을 바꾸어서 올렸다.〔高麗史〕 권 3 세가 3, 목종 12년 2월 己丑)

여기서의 宣仁門은 『高麗史』 地理志에서는 황성의 성문으로, 58) 『高麗圖經』에서는 나성의 성문으로 59) 각각 표기되어 있다. 우선 황성의 성문으로 볼 경우에는, 목종이 쫓겨나면서 머물렀던 法王寺는 황성 내에 위치한 절로서, 60) 여기에서 황성의 선인문을 61) 나와 동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歸法寺가 62) 나온다. 또한 나성의 성문으로 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료 B-⑩에서 선인문을 나성의 東大門이라고 했던 사실은 그 다음의 崇仁門을 東門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된다.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에서 나성의 승인문은 동쪽의 大門으로서 水口門이 딸려있었고, 63) 동쪽으로 나가면 洪護寺가 있으며, 64) 근대의 査閱, 65) 擊毬 놀이, 66) 왕이 大廟에 제사하고 돌아오는 길 67) 등의 역할을 했던 중요 관문이었다. 또한 조선 태조 2년에 內城이 축조되면서 外東

58)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59) 『高麗圖經』 권 3 城邑, 國城條.

60) 박종진, 앞의 논문, 88쪽.

61) 선인문은 황성의 동쪽 성문이다(신안식, 2000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32~34쪽).

62) 귀법사는 나성의 동북쪽 安定門 밖에 있던 절이다(『高麗圖經』 권 17 祠宇, 王城內外諸寺條;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5 開城府下, 古蹟條).

63) 『高麗史』 권 56 地理 1, 王京開城府條.

64) 『高麗圖經』 권 17 祠宇, 王城內外諸寺條.

65) 『高麗史』 권 12 세가 12, 예종 원년 11월 癸巳 '尹瓘 · 吳延寵 閱神騎 · 神步軍於崇仁門外'.

66) 『高麗史』 권 36 세가 36, 충혜왕 후3년 4월 戊辰 '王 擊毬于崇仁門外 去儀衛 止令螺匠 啓道'.

67) 『高麗史』 권 43 세가 43, 공민왕 20년 10월 乙未 '親享大廟 受群臣賀 還次崇仁門內 成均學官 率生員 · 十二徒生徒 獻歌謠曰'.

大門으로도⁶⁸⁾ 불렸다. 이에 비해 『高麗圖經』에서의 선인문이 東大門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 중요성이 승인문보다 위에 있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高麗圖經』은 徐兢이 사신으로 왔던 1123년(인종 원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기록으로서, 나성이 완성되는 시점과 약 100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서공의 착각 혹은 잘못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현종 때 나성이 완성되기 이전에도 東大門·東門 등과 같은 성문 명칭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羅城이 축조되기 이전에도 주요 도로 혹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등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위치는 주로 都內(京城)와 郊外가 구분되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고려초기의 都內·東郊·西郊·南郊·城南·城東·京城 등 개경 영역의 기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전기 개경의 영역 정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경은 자연발생적 도시구조 위에 수도의 기능을 보완하여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도시로 건설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고려전기 外城(羅城)이 없는 상황에서 개경 영역은 도시의 內外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약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영역적 구분은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 건국초기의 개경 영역은 都內와 郊外로 구분되었고, 이는 성종 6년에 五部坊里制가 재정비되면서 현종 20년에 완성된 나성을 기준으로 할 때의 영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보았다. 둘째, 개경의 영역은 건국초기의 都內와 郊外의 구분이 성종 6년·현종 15년에 五部坊里制의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京城과 城外(郊外)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현종 20년 나성의 완성으로 그 영역의 구분이 명확

68) 朝鮮總督府, 1918 「特殊地形圖 2萬5千分1 開城①」, 景仁文化社 影印.; 開城圖書館, 1926 「松都面古蹟圖」 『開城郡面誌附圖』, 景仁文化社 影印.; 전통철, 앞의 논문, 19쪽.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개경 영역의 구분은 건국초기부터 있었지만 나성과 같은 확연한 구획시설은 없었다. 하지만 나성의 성문이 그 완성을 전후해서 만들어 졌다기보다는, 그 이전에도 교외지역에서 개경 내로 들어오는 곳에 성문 역할을 하는 시설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곧 고려전기의 都內(京城)과 郊外 지역의 영역적 구획선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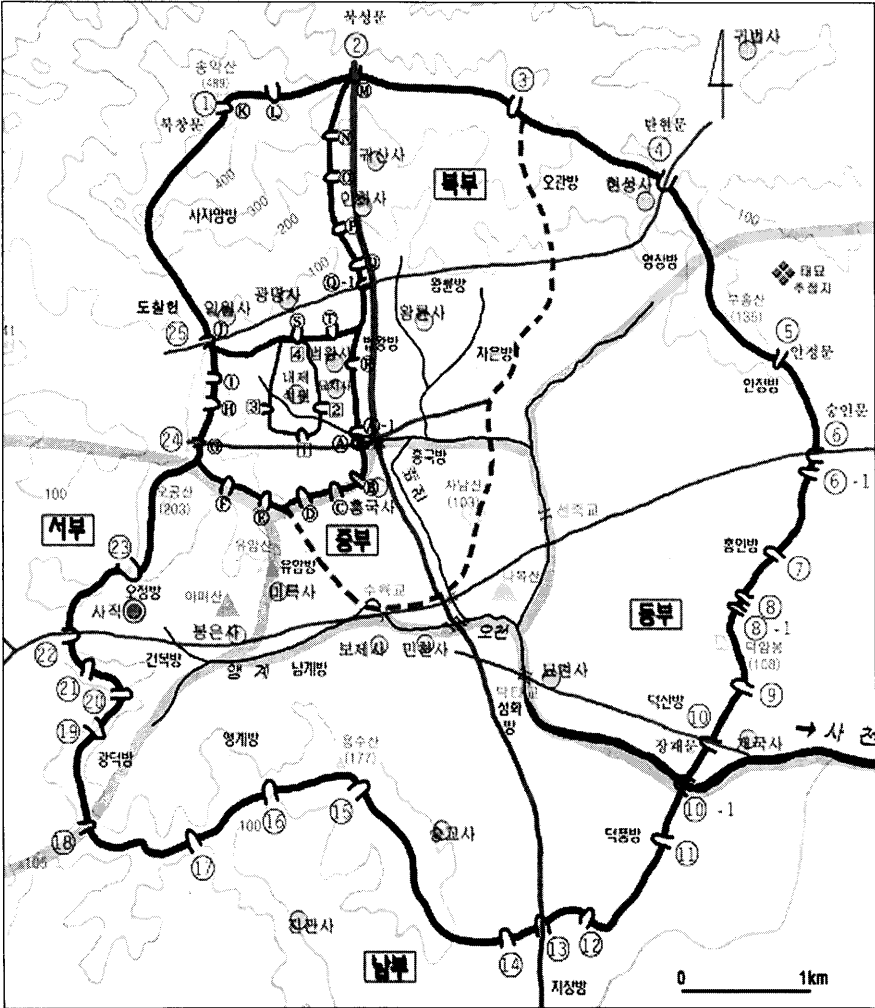
개경 내외의 영역적 구분은 그 畿輔地域으로서의 京畿制 성립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개경의 운영과 군사적인 시설 등의 정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건국초기에 나성과 같은 외성이 축조되지 않은 것은 개경의 도성으로서의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며, 西京과 같은 대안적 도시의 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종대의 나성 건설은 개경의 도시 운영적 측면에서의 築城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개경은 고려 왕조의 정치·교통·군사·상공업 등 국가 운영의 중심이었다. 이런 개경에 대한 연구는 문헌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항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답사와 발굴작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표 2〉 개경의 성곽시설

宮 城		皇 城		羅 城	
①	昇平門	㉠	廣化門	①	紫安門(北昌門)
②	東華門(麗景門)	㉠-1	廣化門 水口門	②	安和門
③	西華門(向成門)	㉡	通陽門	③	成道門
④	玄武門	㉢	朱雀門	④	靈昌門(炭峴門)
		㉣	南薰門	⑤	安定門
		㉤	安祥門	⑥	崇仁門
		㉥	歸仁門	⑥-1	崇仁門 水口門
		㉦	迎秋門	⑦	弘仁門
		㉧	宣義門	⑧	宣旗門
		㉨	長平門	⑧-1	宣旗門 水口門
		㉩	通德門	⑨	德山門
		㉪	乾化門	⑩	長霸門(保定門)
		㉫	金耀門	⑩-1	長霸門 水口門
		㉬	泰和門	⑪	德豐門
		㉭	上東門	⑫	永同門
		㉮	和平門	⑬	會賓門(古南門)
		㉯	朝宗門	⑭	仙溪門
		㉺	宣仁門	⑮	泰安門
		㉺-1	宣仁門 水口門	⑯	鶯溪門
		㉻	青陽門	⑰	仙殿門
		㉼	玄武門	⑱	光德門(勝戰門)
		㉽	北小門	⑲	乾福門
				⑳	昌信門
				㉑	保泰門
				㉒	宣義門(午正門)
				㉓	狻猊門
				㉔	永平門(訥里門)
				㉕	通德門

〈그림 1〉 개경의 공간구조



이 〈그림 1〉은 한국역사연구회 개경사연구반의 연구성과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장지연, 2000 「총론 : 고려시기 개경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38, 7~10쪽).